

# 고통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치유하라

사소한 방해꾼이 당신을 왜소함으로  
끌어 당기지 못하게 하라



나는 영입니다.

상처 받을 수 없으며 온전하고 결백합니다.

모든 것에서 용서받고 풀려 납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불행을  
인식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하지  
만 알고도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허상을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다.



육의 생각은 자신은 변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다. 그러기에 오류를 죄로 만들어 영원  
히 남게 만든다.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누구도  
죄로 보지 않아야 한다.



육의 생각은 자신이 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육의 생각은 저주하고 이성은 구원한다. 이성은 오류란 것을 알기에 죄로 보지 않는다.



육의 생각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  
또한 전체가 아닌 왜곡된 조각을 본다.



몸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라고 믿고 있는  
육의 생각은 몸을 숭배하고 몸에 묶여  
있게 되었다.



육안은 겉 모습만 보고 그 너머를 볼 수  
없다.





허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실재와 모순된다는 이성의 말을 막지  
않음으로써 허상을 극복 할 수 있다.

허상은 항상 진실에 저항한다.



방어는 오직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에서 이루어지며 약하다고 생각하  
는 그것은 자신이 허상과 동일시한  
상태이다.



육의 생각은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고, 연약하고 쉽게 파괴되는 존재로 보며 우리 보다 강한 수많은 가해자가 휘두르고 있다고 본다.



허상은 항상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육체의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자유를 원하는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는 나  
머지에 봉사하고 다른 하나를 더 중요하  
게 내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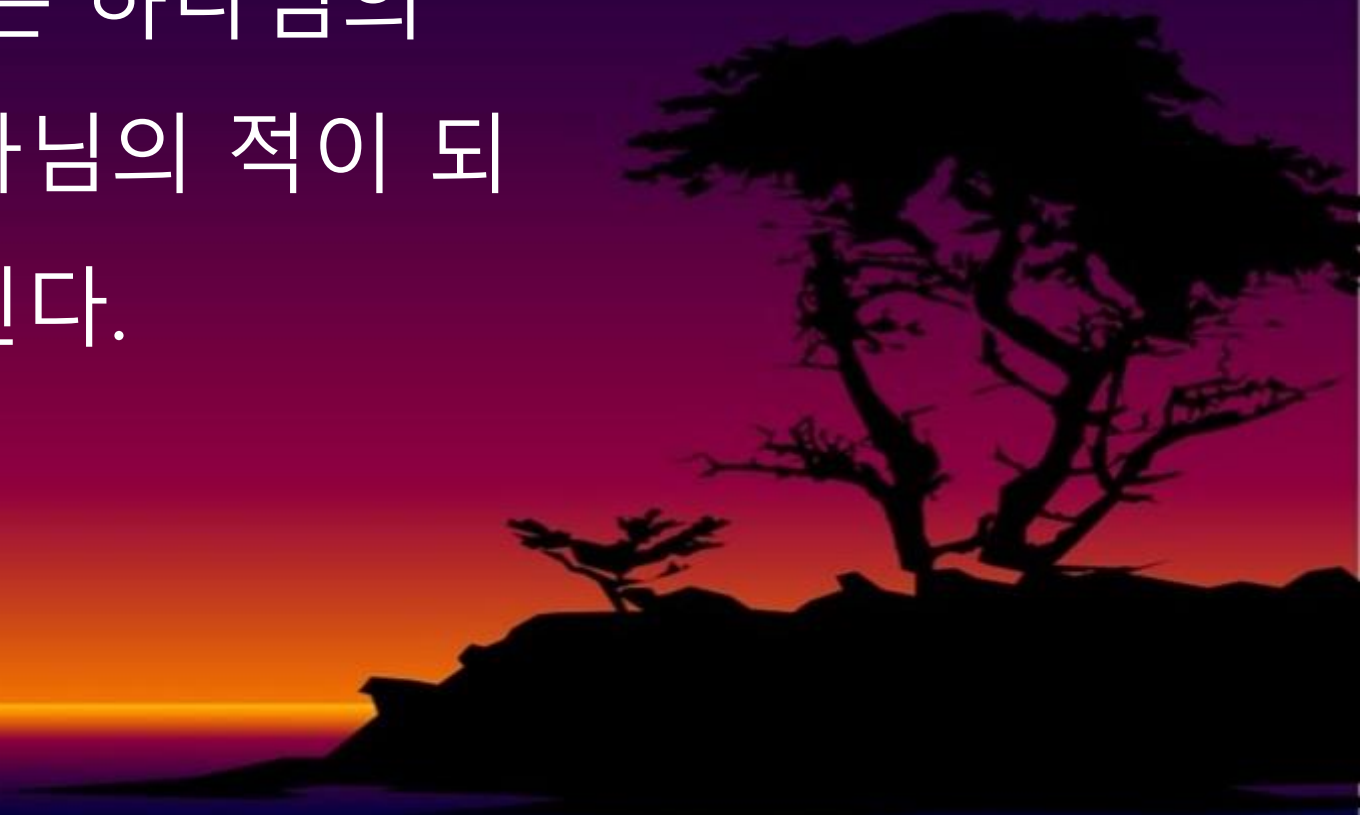
약함의 반대는 무죄이다.

죄 없는 자는 두려울리 없다.

사람들은 약함을 가리기 위해 힘을 과시  
하고 공격하지만 약함은 가려지지 않는다.



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믿음  
으로 작동 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적이 되  
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  
아차려야 한다.

이길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이 원하는 승리일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생각없이 공격한다. 하나님  
을 죽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죽음은 곧  
자기 자신일 것이다.



자신이 영이라는 것을 알려면 자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보고 그것을 사랑스럽게 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죄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재해석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고 구원이다.



자신이 공격하는 것 중에 자신의 부분이  
아닌 게 없으며 자신이 공격하는 것 조차  
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 공격하는 관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모른 채 고통의 근원을 만들어 낸다.

예: 다른 친구들 처럼 기쁘게 놀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한다.- 중독적 행동을 함.



갈등은 언제나 사랑 없이 대하기 일어나  
며 두려움으로 탄생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임없이 상대를 공격할 것이다.



아무도 미친 정신을 원하지 않는다.  
미친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것을 진리  
라는 믿음이다.





자신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갈등 속에 남지 말라. 공격이 없다면  
전쟁은 없다.



자신이 특별해 지려고 할 때 자신 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래야 자신의 특별함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별함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하는  
강력한 독재자이다.



타인과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면  
분명히 자신의 특별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의 생각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비교이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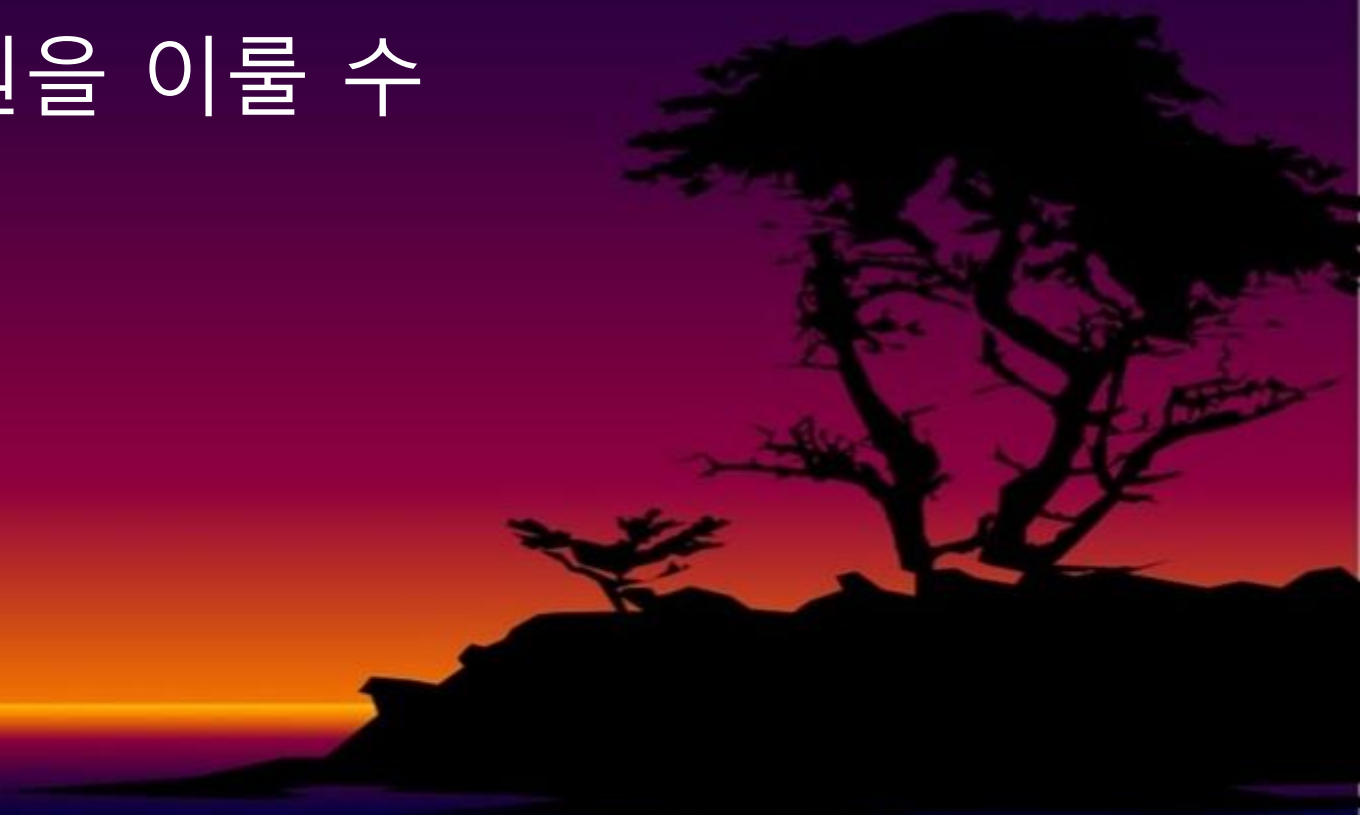
특별함은 언제나 비교한다. 타인의 부족  
함을 먹고사는 특별함은 모든 부족함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 특별함이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사실  
도 모른 체...



특별함을 추구하면 언제나 평화를 잃어 버린다. 그 누가 자신을 구원 시켜줄 구원자를 없이 여기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특별함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며  
구원을 좌절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자신의 특별함을 지키려고 노력 할 수 있

지만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특별함에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  
의 자리에 죄를 놓고 그것에 충성한다.



그 어떤 형태의 특별함이든 소중히 여긴  
다면 자신은 그것을 죄로 만든 것이다.



우리 자신은 온 힘을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항하고 죄를 강력히 보호한다.



특별함이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결코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반대하겠다는 은밀한 맹세이다.



특별함은 자신 외에는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에게만 믿음을 투자한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볼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세상 경험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림자 일 뿐이다.



판단하지 말라 자신이 죄인이라 서가  
아니라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결정하게 하라



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가치 있고, 추구할 만하다고 믿는 모든 것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고, 다치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다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허상을 부인하지 않고 실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죄가 실재라는 믿음,  
공격에 힘이 있다는 믿음,  
다칠 수 있고 해악을 줄 수 있다는 믿음,  
희생과 죽음이 실재라는 믿음.



하나의 허상을 실재로 만들면 나머지  
허상에서도 벗어 날수 없다.



죄란 오류가 아니다. 죄는 교정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유의 가망이 없고 지옥이라는 처벌을 만들었다.



죄가 실재라는 관념이 그 근원을 떠나  
실재가 되게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오류  
에서 죄와 희생의 세상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를 따로 두지 않고 같이  
둘 때 기적이 가능해진다. 원인은 두고  
결과만 치유하는 것은 결과의 형태만  
바꿀 뿐이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는 믿음은 자신  
아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겼다  
는 관념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각하려는  
유혹을 조심하라.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대가를 지불하려 한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틀렸다고 말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타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려 한다.



희생이라고 느끼는 순간 나만 희생당하지  
않으면 전체가 희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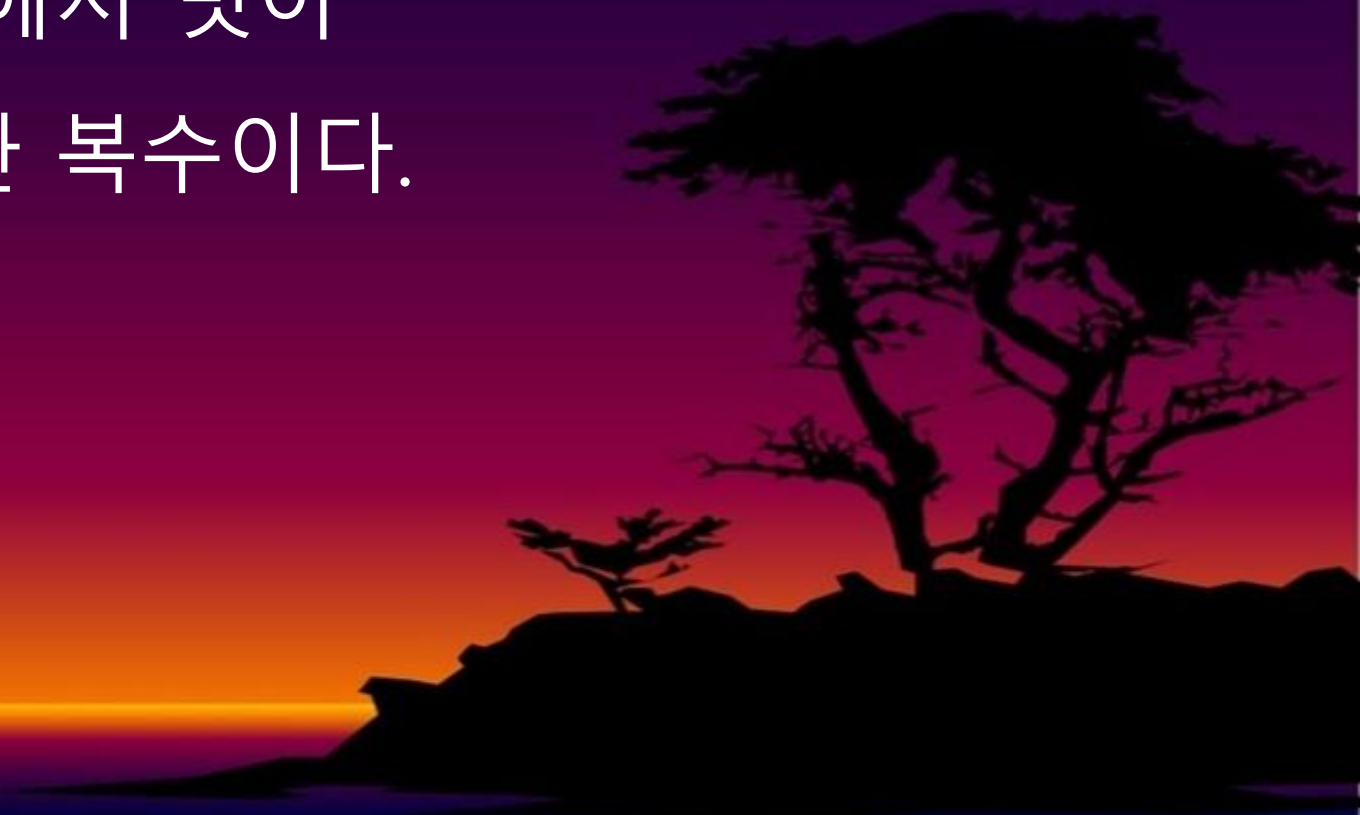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라.  
과거는 사라졌다.



자신이 겪는 고통과 병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한 죄를 나타내려는 시도이다.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결코 이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복수이다.





그 자신은 상처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을 벌할 수만 있다면 이처럼 병들고 평생  
고통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  
겠다는 굳은 결심이다.



상처입은 자는 모두에게 무자비하고, 오염시켜 죽이려 든다.

"나를 보라 나는 그대의 손에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죽음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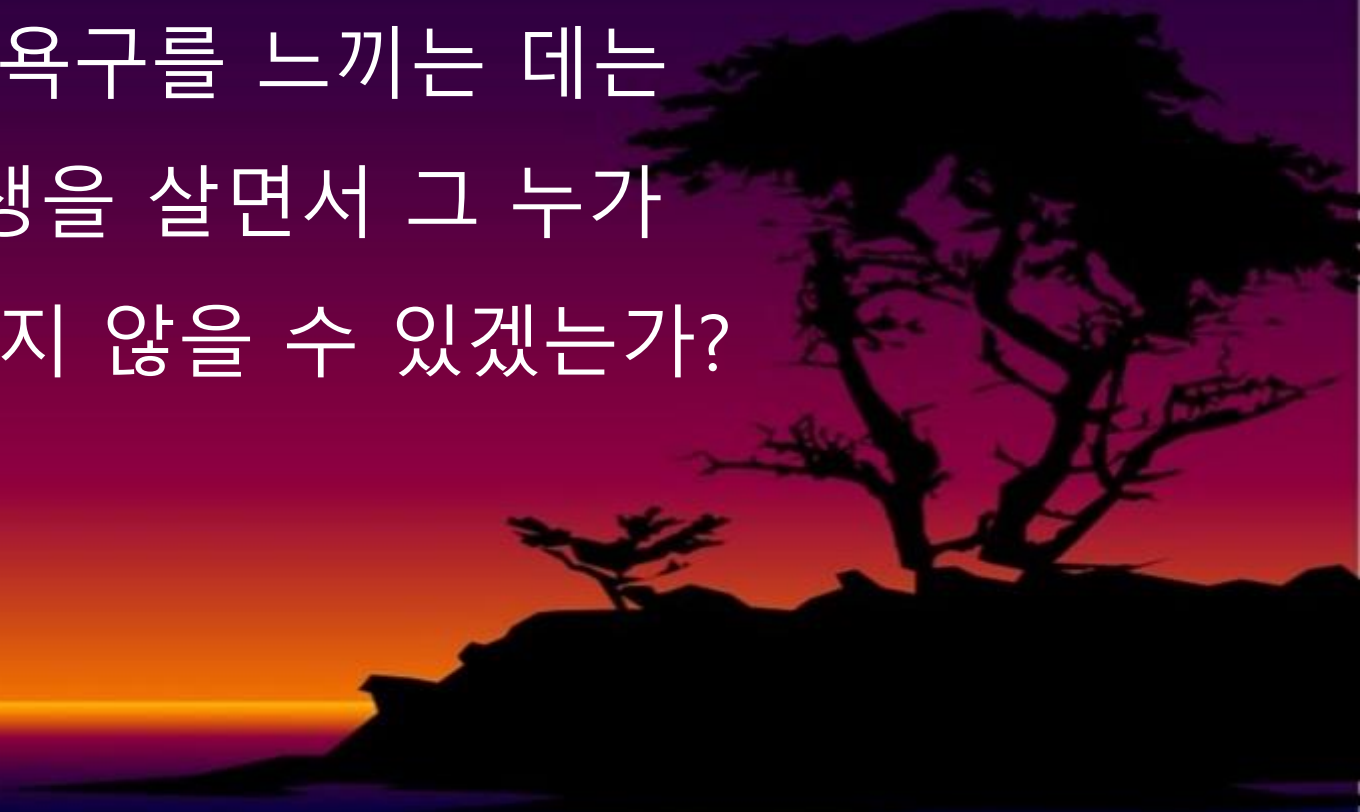
고통은 형제의 유죄를 증거하고 죽음은  
형제의 오류가 죄임에 틀림없다고 입증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목적은 죄책이 실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 혹은 감정은 이것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다.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이 대변하는 체계를 더욱 확신하기 위해, 나는 그것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운 것이다.



죄를 정당화 하는 것은 병이 든 것이다. 병든 자가  
부자연스러운 욕망과 이상한 욕구를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토록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누가  
스쳐가는 즐거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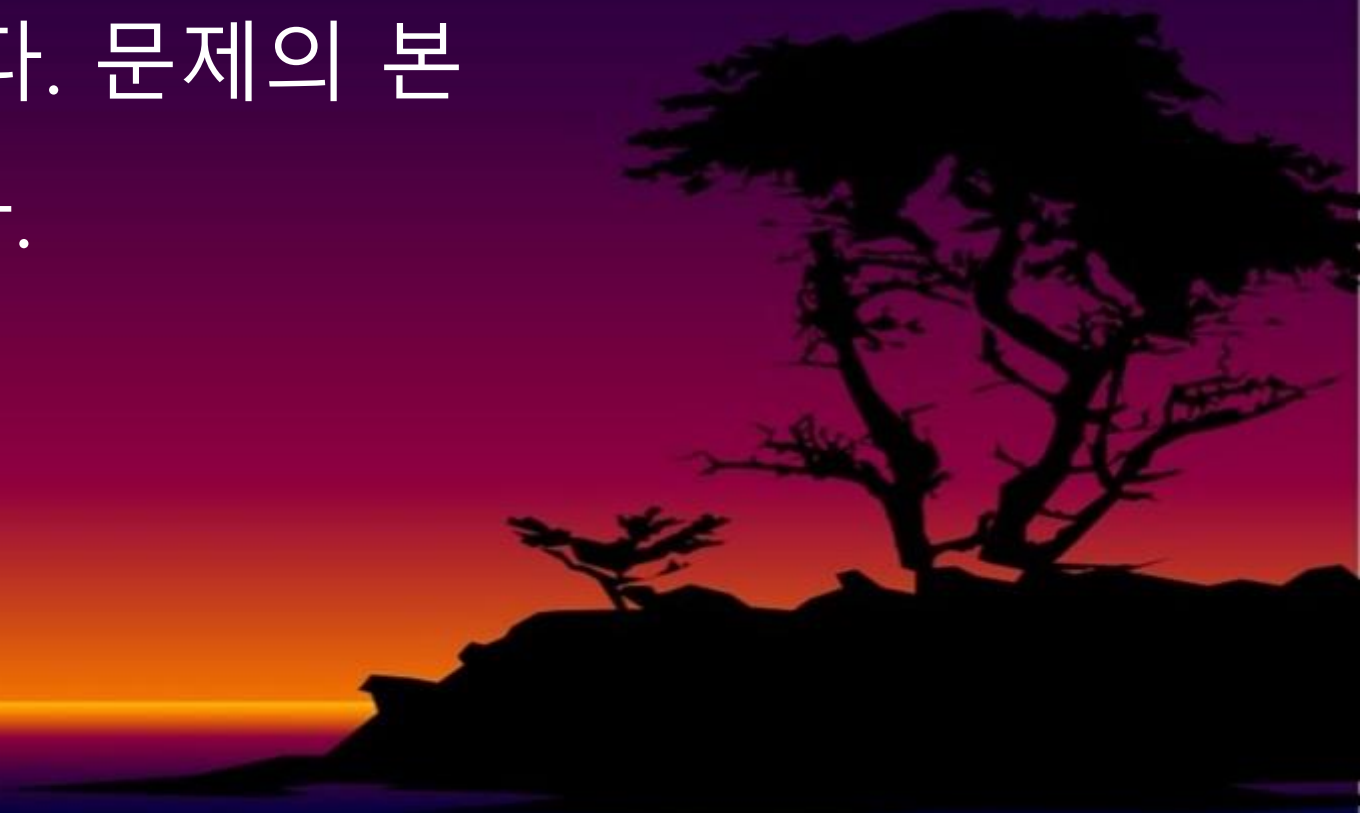
우리는 기능이 존재라는 것을 확장해서  
보려 한다. 기능적 오류를 자신으로 보지  
말고 오류만 바로 잡아라!



한순가만 자신이 공격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바로 그 순간 모든 치유가 이루어진다.



자신이 가진 문제를 이해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  
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통과 쾌락은 몸을 실재로 믿게 만든다.  
죄는 고통에서 쾌락으로 갔다가 다시 고통으로 돌아온다.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나에게 가한 모든 상처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무엇이 가해졌는지는 알지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



괴로움의 근원을 자신의 밖에서 보기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보지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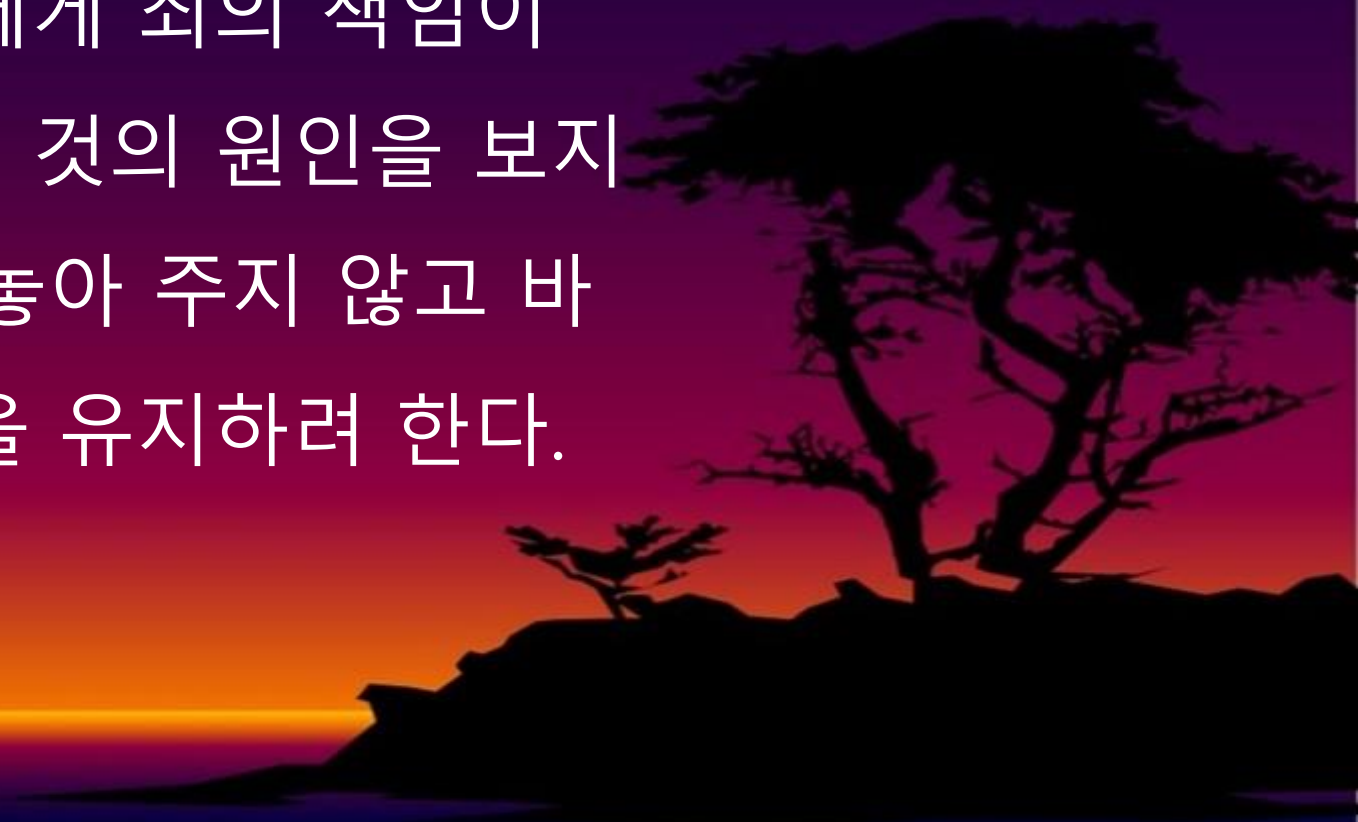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내 행동의 원인은 "나"다.



우리는 정확히 자신이 남에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이 나에게 한다고 믿을 것이다. 일단 남의 탓으로 착각을 하면 그들에게 죄의 책임이 있기를 원하므로 그들이 행한 것의 원인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죄책을 절대로 놓아 주지 않고 바깥에 떠 넘겨서 자신의 결백을 유지하려 한다.



나는 영입니다.

